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처세의 달인**

성경: 빌립보서 4장 9-14절

Tag:

9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10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11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4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 4:9-14)

바울의 일생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과히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만한 것들이 없다.

가치관의 문제이겠지만,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따진다면 정말 초라한 인생인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본다면 정말 드라마틱하고, 열정적이고, 헌신적이고, 격한 소망중에 살았던 사람이다.

<물론 많은 부분 그의 격한 성품으로 인한 것들도 많다. 스테반 사건을 필두로, 뒤를 이은 다메섹 회심경험을 통해서 복음전파를 위해 올인한 삶을 살게 된다. 바울의 복음을 향한 격한 헌신은 스테반에게 진 빛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갚기 위한 것일 수 있다.>

당시의 사회적 시대적 상황이 매우 종말론적이고,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었고, 성령의 시대였으니 다른 어느 때, 어느 장소보다 더 영

적으로 역동적인 시대였다고 보는 것은 확실할 것이다.

어쩌면 **요즘도 불확실성이 팽배해진 시대**이니, 분위기는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미중 전쟁이 무역전쟁에 그치지 않고 체제전쟁 양상을 띠어가고 있고, 북한과 일본의 최고 통치자에게 유고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인도와 중국 국경은 일촉즉발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 정부는 자꾸 공산주의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정치와 사회는 **끊임없이 정쟁**을 계속하고 있고, 정부는 재난을 통한 통치에 여념이 없으며, 자꾸 국민을 둘로 나누며 갈등을 유지하는 것이 정권연장의 생명줄이 되었다.(추미애 사태도 일시적 민심의 향방 돌리기작전. 4.15총선 이후 계속되는 이슈로 음모가리기 작전. 이리다 결정타가 온다.)

코로나 재앙 보다, **현정부의 공산주의 실험으로 인한 재앙이 더 큰 재앙이다.** 그런데 마치 실험 실패로 인해 중환자실에 환자가 넘쳐나고 있는데, 그걸 마치 코로나 병실로 위장해서 위기를 모면하려는 모양이다. 한편으론 불쌍하기도 한데, 야당이 엉뚱한 공세를 하도록 해서 더 큰 이슈를 잠재우고 있다. 미국도 북한도 중국도 일본도 현 정부를 도와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짠하다. 원래 계획은 이게 아닌데,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시대가 지난 엉뚱한 이념으로 통치하려고 하니, 맞지 않는다. 태극기세력도 구시대적 이념으로 뿔뿔 뿔어져있고, 현 정부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는 처세의 달인이 되어야 한다.

바울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였다. 비록 당시에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에 가장 암울한 시기였다고 회상하겠지만, 결국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생각해 보면, 그때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한 단계 한 단계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세상은 억지로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끄는대로 끌려가는 것이 세상이다. (시편 2편)

1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2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
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3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4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렇게 꾀박하면 저
렇게 꾀하고, 꾀할 수 없으면 당하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 도망할 수 없으면 꾀하지 말라. 다만 믿음이 약해
지지 않기를 기도하라. 나 때문에 마귀가 웃지 않도록 주의하라.

9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은 당당하게 자기에게서 배우라고 한다. 그만큼 자신감이 넘친
다는 뜻이다. 험험단신이니 무서울 것 없고, 순교를 각오했으니 거칠
것이 없다.

어떤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격리된 후 직장에 갔더니 사장이 회사를
그만 두라고 했단다.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이 이 사람을 꾀한다나?
코로나 핑계로 인원을 감축한 것이다.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 파산,
자살자가 늘었다고 한다. 모두 핑계다. 코로나가 아니어도 다른 이유로
똑같은 일 일어난다. 단지 빨리 일어났을 뿐이다. 예로부터 기독교인
들은 처세의 달인이다. 모두 바울을 닮았다. 프랑스에서 기독교인들
꾀박하자 스페인으로 포르투갈로, 스위스로, 독일로, 네델란드로, 덴
마크, 스웨덴, 폴란드로 도망갔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더 전파 되었
다. 도망가서 모두 성공하였다. 영국에서 기독교인들 꾀박하자(청교
도) 이들은 과감하게 신대륙으로 건너가 미국을 세웠다. 믿음대박을
일꾀냈다.

최악의 경우 한국교회가 한반도를 탈출하게 되더라도 염려 없다. 세
계가 한국인을 반긴다. 특히 기독교인들을. 다만 그렇게까지 되지 않

기를 기도하자. 지금도 세계 곳곳에 한국인들 너무 많으니 하나님 참아 주십시오. (쫄딱 망한 권집사, 브라질 가서 잘 산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선민의식을 가르쳤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라. (백성과 시민의 차이. 백성은 왕에게 속한 자. 시민은 한 개인과 그에게 속한 가족의 주체성과 정체성이 분명하고, 자유와 소유권과 의무가 법으로 보장된 존재)

-받고;계시와 사명과 소명을 받은 존재로 살라. 무엇을 하며 어디에 살든 이 사명을 위해 살라.

-듣고;복음과 가르침과 윤리에 순종하며 살라.

-본바;바울의 성실함, 부지런함, 최선을 다함, 애써 이룸, 경건생활 등.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심.

-9절은 기독교인 처세의 기본.

10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을 위한 선교헌금.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기초생활을 자신이 해결함.

-먹고 사는 문제를 자신이 해결함. 성도의 기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도와 주어야 함.) 억지로 끌어 당긴 것들이 문제.

-그러나 그동안 빌립보교회가 바울의 선교를 적극적으로 도움.

-그러다 중간에 사정이 있어서 마음은 있었지만, 선교비가 끊어짐.

-이제 다시금 선교헌금에 대한 감동이 생겨서 에바브로편에 선교비를 보냄.

-이를 인해서 크게 기뻐함.

-바울로서는 끊긴 선교비 때문에 궁핍하였지만, 그는 궁핍에 대비하는 생활을 하였다.

11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의 달인;자족하기 어려운 자들이 분명히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나 스스로의 생활비를 자급자족하는 것이 시민의 기본이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은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들이다.

-자족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돕는것에 만족하는 자가 되자. 이것이 처세의 비밀. **하나님이 나를 돕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현실적이고 유익하고 선한 것.**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관, 복음과 윤리, 경건의 생활 가운데 밝혀지는 하나님의 눈으로 도울 자들을 발견하고 돕는 길을 모색하고 돕는 것. 이것이 일체의 비결이다.

-가난해도 부족함이 없고 부요해도 넘치지 않는다.

-가난해도 원망하지 않고, 부요해도 교만하지 않는다.

7 여호와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데도 (삼상2:7)

8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잠30:8)

*바울의 처세중 가장 강력한 비결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있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

-하나님이 바울에게 능력을 주심.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 하고자 할 때 도우신다.

-할 수 없을 때 기도하였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을 하였다.

- 능력의 재 발견.
- 나는 가난하였고, 학생으로 살길이 막막함.
- 나는 알바를 시작했고, 아이가 태어나고는 교회에 전도사로 섬겼다. 알바로 번 금액이 전도사 사례와 같았다.
- 그 후로도 오래도록 가난하게 사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
- 그러나 개척을 하고 나서는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다.
- 열심히 기도했고, 전도하였으며,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교회일에 소모하였다. 교회도 잘 운영되고 헌금도 잘 들어왔다.
- 하나님은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나를 도우셨다.
- 2011년 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의 후폭풍이 불기 시작했고, 교회도 어려워졌다.
- 나는 커피를 배우기 시작하고 더치커피를 생산하였다.
- 나는 스스로 일터사도가 되기로 했다.
- 하나님은 그런 나를 도우셨고, 점점 수입이 많아져 교회 운영이 안정되었다.
- 항상 돕는 일과 베푸는 일을 쉬지 않았다.
-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 하나님은 내게 능력을 주시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주신다.
- 다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된다.
- 매사에 풍성하고 많이 베풀었다.

14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빌립보교회는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
 물리칠 수 없는 괴로움이 있다.
 나의 도움이 절실한 자들이 있다.
 내가 도와야 하는 자들이 있다. 식구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교인이 될 수 있고, 작은 교회가 될 수 있고, 선교지가 될 수 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언제 세상의 빛이 되었었나?

한국교회 교인들이 개척교회에서 헌신할 때이다. 60-80년대 이야기다.

그때 한국교회는 일부러 개척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다. 그러면서 복을 받았다. 가장 큰 처세는 뉘러움에 동참하는 것이다. 큰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면 뭔가 내가 큰 사람 된 것 같고, 큰 믿음 있는 것 같고, 훌륭한 사람들 틈에서 나도 그들의 일부가 된 것 같다. 틀린말 아니다.

그러나 그것도 좋지만, 더 잘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어려운 자들과 함께 짐을 져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돕고 싶은 자를 도우면, 도움이 필요없는 나를 하나님이 도와 주신다. 힘을 주신다. 길을 열어 주신다. 복을 주신다. 내가 하려는 일을 형통케 해 주신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다니엘의 기도 성경: 다니엘 6장

Tag:

다니엘과 한국교회

- 다니엘은 아무 흠이 없었다. 그럼에도 기도 금지법을 만듦.
- 한국교회는 흠이 많았다. 기회는 이때다, 코로나 방역 핑계로 예배 금지. (빨쭈해서 카페도 금지) 게이클럽을 철저히 단속하지 않는 정부, 중국을 단속하지 않는 정부. 이미 감쪽같이 깜깜히 퍼져있고 항체까지 생성된 자들을 모른척 하는 정부.

한국교회의 단점은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 비판은 의미 없고, 개선책이 절실함.

- 우선 잘못된 교리들이 발목을 잡았다. 구시대적이고 설득력없음.
- 교단의 분열로 인해서 이단들이 할거하는데 속수무책이었다.
- 부흥에 취해서 부흥 이후를 대비하지 못했다.
- 방만한 현금 사용; 지나친 건축현금 / 지나친 선교현금.=사회적 경제현상으로 인한 것도 큼.
- 제도의 효율성 떨어짐.

*다니엘은 시기심 때문에 고난당함

*한국교회는 자체적인 결함 때문에 고난당함

*한국교회는 북한정권에 의해서 고난당함. -북한은 최고의 반 기독교적 정부, 이념적 공격. 집요한 공격. 대형교회에 대한 공격. 이념전쟁에서 승리해야 문제가 해결됨. 통일되도 이념은 남는다.

-현 한국교회의 고난은 복합적인 결과물. (이단도 많고, 샅군 목사

도 많고, 율법주의자들도 많고-현실적응에 어려움, 거짓 선지자들도 많음) 이와 같이 환난의 불에서 타서 소멸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함.

-현 정부의 탄압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임.

-우리는 정부를 비판하지만 말고, 무엇이 불법인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함.

-총회는 신속하게 정부의 불법에 법적으로 대항하라!

-코로나에서 벗어난 나라가 많다. 포기한 나라도 많다. 러시아, 스웨덴, 대만.

-우리나라도 이미 벗어났지만, 정부가 놓지 않는다. 코로나버스에서 내리려고 하지 않는다. 애를 낳아야 하는데 낳으려고 하지 않는다. 부동켜 안고 끄꿍대고 있다.

-지난 주 목요일 항체결과 검사 발표 토요일, 월요일로 연기. 전문가 의견 취합 중. 그러나 정부 개입설 돌아.

-틀림없이 광화문발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아서였을지 모름.

-그러면 이는 상당히 부담됨. 현 정부의 또 다른 뇌관.

-현재 의사들도 반발하고 있음.

*다니엘은 순순히 걸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

-다니엘의 적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짐.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단순한 구도가 아닌 이념 전쟁이고, 자체결함 때문이다. 원인분석과 전략이 필요하며, 젊은이들이 힘을 더 내야 한다.

*다니엘의 기도 전략은 변함없는 경건이다.

*우리는 여기에 더해 계속되는 개혁교회 정신이다.